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고흥군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최근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개소식은 송기근 고흥군수, 도·군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515개소 고흥군 전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 치매예방 체조 시연과 함께,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송기근 군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초기 상담과 예방 및 조기검진 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잘 실천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고흥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연면적 462.40㎡,

지상층 규모로 치매 검진실, 상담실, 치매환자 청춘센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1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 1:1 상담과 자조모임을 통한 치매가족 지원,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관련 서적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지역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안하게 쉬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 치매가족들의 부담 완화 및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 확대로 치매 걱정 없는 고흥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순천시, 경제활력으로 시민 삶의 질 높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체감하는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시민들의 삶에서 경제, 문화,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 생활 환경중 '경제적 안정'은 삶의 밑바탕이다 할 수 있다. 순천시는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시정 철학에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비전으로 생태와 자연을 지켜온 순천시는 생태와 자연을 경제활력으로

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뿐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한다는 것이다.

시는 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 신화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 발굴에서 육성, 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실

리콘밸리 중관촌을 벤치마킹하고 올 1월 현지 창업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순천형 직장체험 청년일자리사업, 창업경연과 공공기관 근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인턴, 찾아가는 취업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작은 거인 더 드림 프로젝트,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안심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도 추진중이다.

또한, 지역의 신성장엔 재취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지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내달부터 전체 어린이집 무상 보육 시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920여 명 자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여수시가 오는 7월부터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총 149개로 민간·가정이 101개, 영상·시립·직장 등이 48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7290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법인·시립·직장 어린이

집 등은 무상 보육이 진행됐다. 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부모는 매달 4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까지 추가 보육료를 내야 했다.

여수시는 어린이집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8억 9백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동 920여 명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양경제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 가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경제자유구역 운영기관 협의체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WFZO는 2014년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의 비영리기구로 현재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등 90여개국의 정부기관과 350여 다국적 해외기업들이 회원사로 활동중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어 국내에서는 4번째로 가

입하게 되었다.

이번 가입은 카자흐스탄의 경제특별구역 중 하나인 Pavlodar JSC의 권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Pavlodar JSC는 지난 4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간 협력사업을 구축 중이며 현재 WFZO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곡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별도 가입 없이 신체 피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보장

곡성군 주민이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곡성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모든 군민과 곡성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별

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강도,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 유정해, 익사 사고사망, 스포츠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등 총 11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 1천

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년 보험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곡성군의 계획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보성군, '자매결연' 지역 감자 8톤 공급

보성군은 18일부터 자매결연 지자체에 보성 특산품인 보성감자를 공급하여 상생과 협력 등 교류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감자는 청정지역인 회천면에서 재배한 수미품종으로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와 인천시 동구, 대구시 북구 및 광주시 동구 등 총 6개 지자체에 8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 공급하는 감자는 재배지역에서 바로 수확한 우수한 제품만을 엄선하여 군에서 직접 운송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시 강북구청 대외협력팀장은 "2009년부터 매년 직송하는 보성 회천감자를 먹고 있는데 그 맛이 일품이면서 재구미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농민회, 통일쌀 공동경작단 모내기

올해로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구례 통일쌀공동경작단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구례군농민회(회장 윤병술)의 주관으로 구례군 여성농민회, 화원사, 기자자동차노동조합, 관내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방면 신도리 경작지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남북교류 확대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구례군농민회원으로 구성된 통일종물단의 결실이, 화원사 스님의 종년기원 축원, 통일공동선언, 모내기 정서 익히기

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구례군농민회 관계자는 "올 가을에 수확할 통일쌀을 북한주민에게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남북 관계가 시원하게 물꼬가 트이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8·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생산된 쌀이 북측 동료들에게 전달되어 통일의 미중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